

# 반공포로 63인의 타이완행과 교육 및 선전 활동

박영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전임연구원, 한국정치사 전공  
athena0901@hanmail.net

- I. 머리말
- II.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과 중국군 포로의 수용소 배치 현황
- III. 한국과 중화민국 간의 관계 및 1950년대 한국 화교의 현황
- IV. 반공포로 63인의 타이완행과 교육 및 선전 활동
- V. 맺음말

## I. 머리말

1951년 7월 10일 제1차 휴전회담이 시작되고 1953년 7월 27일까지 2년의 협상 기간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끌었던 주제는 포로송환 문제였다. 당시 중조연합사령부가 구성되어 공산 측의 주도권이 중국에 이전된 상황에서 중국의 강경한 전원송환원칙 주장은 회담을 지연시켰다. 2년여 동안 지속된 협상은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의 사망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결국 6월 8일 전쟁포로송환 협의가 최종 타결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6월 18일 반공포로를 석방하였고, 이 문제로 공산 측이 반발하였지만 결국 정전협정은 체결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정부의 반공포로 석방 당시 한국 측 포로들과 함께 탈주했다가 타이완으로 간 중국 국적 반공포로 63인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sup>1)</sup> 한국전쟁기 포로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휴전회담의 지연과 관련되어 논의되었고, 포로정책<sup>2)</sup>, 국군포로 등을<sup>3)</sup> 중심으로도 연구되었다.<sup>4)</sup> 또한 자서전적인 성격의 회고록이 출판되었으며<sup>5)</sup>, 중국<sup>6)</sup>과 타이완<sup>7)</sup>

- 1) '귀환'은 "다른 곳으로 떠나 있던 사람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을 의미한다. 반공포로 63인의 타이완행이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의사이지(그들 모두가 타이완행을 원했는지의 여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고국으로의 귀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귀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2) 이상호, 「한국전쟁기 미군의 공산포로 “미국화 교육”」, 『역사와 현실』 78(2010); 김승태·조성훈, 「6·25전란기 유엔군 측의 포로정책과 기독교계의 포로선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21(2004); 조성훈, 「한국전쟁 중 공산 측의 유엔군 포로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6(1997).
- 3) 조성환,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 인도적·인권적 관점」, 『통일문제연구』 23-2(2011); 제성호, 「남북정상회담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전략연구』 15-1(2008). 그 외에 중립국을 선택한 포로에 대한 연구가 있다. 김경학, 「인도 정착 한국전쟁 중립국 선택 포로의 이야기」, 『인도연구』 9-1(2004).
- 4) 국내에서 간행된 첫 번째 연구성과로는 국방군사연구소가 1996년에 편찬한 『한국전쟁의 포로』가 있으며, 그 외에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선인, 2010)는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 전반과 포로수용소 내에서의 갈등, 그리고 포로교환과 송환거부의 포로처리까지를 다루고 있다.
- 5) 張澤石,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오세희, 『65포로수용소』(만인사, 2000).
- 6) 관련 연구로는 大鷹, 『志愿军战俘记事』(昆明: 昆明出版社, 1987); 佚名, 「志愿军战俘为何去台湾」, 『文史月刊』 3期(2013); 毛剑杰, 「策反密谋: 志愿军战俘投台的历史真相」, 『中外文稿』 7期(2012); 王丰, 「万名志愿军战俘“拒返大陆”真相」, 『共产党员』 15期(2010); 赵英魁 口述·王丰 文, 「“一万四千反共义士”骗局」, 『文史博览』 7期(2010); 徐宗懋, 「志愿军战俘去台始末」, 『晚霞』 10期(2008); 徐宗懋·闻达, 「志愿军战俘去台始末」, 『文史博览』 17期(2005); 王勇·那孝伟, 「蒋介石劫掠志愿军战俘罪行大曝光」, 『党史文苑』

에서도 연구되었지만 이 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반공포로 63인의 행적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과정과 당시의 포로수용소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전쟁에서 포로의 발생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붙잡힌 중국군 포로는 부산과 제주도 모슬포에 수용되어 있었다. 포로석방 당시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 인원 2만 7,388명은 한국인이었고, 부산지역에 있던 중국 국적 반공포로는 당시의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하여 탈출한 사람들이었다. 이에 중국군 포로의 수용소 배치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한국과 중화민국<sup>8)</sup>의 관계 및 1950년대 한국에 거주하던 화교의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1953년 6월 18일 탈출한 반공포로 63인은 10월 8일 타이완에 도착할 때까지 부산에서 기거하였다. 이는 당시 피난을 내려온 화교가 그곳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중화민국 주한대사관과 본국 정부 간의 연락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타이완 정부가 반공포로 63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타이완에 가서 2개월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것이다. 이 63인의 행적은 이후 타이완으로 간 1만 4,000여 명 포로의 미래상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의 주요 자료는 臺灣 國史館과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소장 자료이다.

---

3期(2002).

7) 反共士奮闘史編輯委員會 編, 『反共士奮闘史』(台北: 反共義士就業輔導處, 1955).

8) 이 글에서는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시기는 '중화민국'으로, 이후의 시기는 '타이완 정부'로 서술한다. 다만 공식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중화민국'으로 표기한다.

## II.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과 중국군 포로의 수용소 배치 현황

### 1.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과 포로의 발생

1950년 10월 19일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卫国)’의 기치를 내걸고 중국군이 한반도에 진입하였다. 중국은 전쟁 발발 이전부터 북한의 전쟁 도발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는데, 1950년 3월 30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전쟁 개전의 허락을 받은 김일성은 5월 13일 베이징에서 마오쩌둥과 회담하였다. 당시 김일성은 미국이 한반도처럼 작은 땅의 전쟁에는 참전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였고, 마오쩌둥 역시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에 필요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sup>9)</sup> 하지만 김일성은 중국의 지원이 없더라도 전쟁을 진행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중국에는 개전 날짜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전쟁 발발 3일 후에야 이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10)</sup> 당시 중국은 북한의 전쟁 참여 요청이 없었는데도 7월 13일 동북변방군(东北边防军)을 조직하였고, 8월 11일경에는 타이완 공격의 일시 보류를 결정하였다.<sup>11)</sup> 이후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유엔군이 북진하는 상황에서 북한 및 소련의 요청이 있자 중국 정부는 수차례의 내부 회의를 통해 참전을 결정하였다.<sup>12)</sup>

마오쩌둥은 10월 8일 참전을 결정하면서 동북변방군을 중국인민지원군(中国人民志愿军)으로 바꾸어 참전하였다. 이들은 ‘지원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지만 실제로는 정규군이었고, 이들 중 일부는 국공내전에서 패배한 국민당군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9년 신화사(新華社)가 출간한 『中国人民解放战争三年敌我兵力消

9) 沈志華 編,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下冊(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92), 1346쪽.

10) Zhang Shuguang and Chen Jian(eds.), *Chinese Communist Foreign Policy and the Cold War in Asia - New Documentary Evidence, 1944-1950*(Chicago: Imprint Publications, 1996), p. 153.

11) *Ibid.*, p. 157.

12)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과정에 관한 내용은 박영실,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관계』(선인, 2012) 참조.

长对比』에 따르면 1946년 7월 중국인민해방군과 국민당군의 병력은 120만 명 대 430만 명이었고, 1949년 6월에는 400만 명 대 149만 명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국공내전의 3년 동안 쌍방 군대는 거의 매년 70만 명에서 100만 명의 병력이 증감하였고, 중국인민해방군 병력의 상당수는 원래 국민당의 포로가 포함되었다고 한다.<sup>13)</sup>

한국전쟁에서 처음으로 중국군이 포획된 날짜는 중국군의 1차 전역 시작일인 10월 25일이었고, 장소는 평양북도 운산(雲山) 온정리였다.<sup>14)</sup> 이후 전쟁이 진행되면서 중국군 포로의 수도 증가하는데, 유엔군사령부가 1950년 7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조사한 포로수용소의 통계를 살펴보면, 중국군 포로의 수가 처음 집계된 1950년 12월에는 1,245명이었다. 중국군 포로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는 1951년 중국군의 5차 전역 기간 중인 4월부터 6월까지였고, 이 당시에 전체 포로 수(2만 1,074명)의 약 75%(1만 5,489명)가 포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5)</sup>

1951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휴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7월 8일 제1차 연락관 회의가 개최되고, 10일부터 정식회담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군사분계선과 포로 관련 문제 등으로 회담이 지연되면서 고지쟁탈전 같은 전투에서도 포로가 발생하게 되었다.

## 2. 포로수용소의 설치 배경 및 중국군 포로의 현황

전쟁에는 사상자와 포로가 동반되는데, 한국전쟁 중에 발생한 포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용소의 설치가 시급하였다. 처음 만들어진 포로수용소는 1950년 7월 7일 대전형무소 내에 육군형무소와 함께 개설되었고, 인천상륙작전 후에는 인천, 서울, 평양, 대전, 원주 등에도 포로수용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중국군의 참전으로 대부분의 포로와 경비 병력이 부산으로 이동하고, 1950년 12월 말 부산 포로수용소의 인원이 13만 7,212명이 되자 더 이상 기존 시설로는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포로 외에도 당시 부산에는 많은 피난민이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13) 徐宗懋·闻达, 앞의 논문, 52쪽.

14) 육군본부, 『유엔군 전사,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제1집(육군본부, 1963), 362쪽.

15) 조성훈, 앞의 책, 33쪽.

결국 포로들은 거제도로 이송되었다. 실제로 휴전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념적 성향에 따른 갈등이 드러나지 않아 포로들의 분류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념적 갈등이 악화되자 포로의 분리수용이 제기되었다.<sup>16)</sup> 특히 1952년 5월 7일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발생한 돛드(Francis T. Dodd) 소장 피랍사건 이후에는 수용소가 재정비되어, 포로의 성향과 국적에 따라서 분리하여 수용하는 방법이 채택되었다. 1953년 중국 포로의 수용소별 분리 현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수용소별 중국 포로의 수(1953. 2. 28)

(단위: 명)

연번	수용소 번호	위치	포로 성향	중국 국적
1	1	거제도	친공	13
2	2	부산	친공	426
3	8	제주도	친공	5,911
4	2	부산	반공	427
5	3	모슬포	반공	14,298

출처: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선인, 2010), 273-274쪽 편집 인용.

중국 국적 반공포로들은 부산과 제주도의 모슬포로 나누어서 수용되었다. 이는 1951년에 포로들을 거제도로 이송할 당시 부산수용소에는 주로 질환이 있는 포로를 비롯해 여성포로, 민간인 억류자만 남겨 두었기 때문에, 부산지역에 있던 중국 포로 역시 환자들이 중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포로가 재배치되고 정전협정 체결을 앞둔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포로를 석방하였고, 당시 공식적인 인원은 2만 7,388명이었다. 이 인원에는 대해서는 자료마다 상이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포로들의 탈출이 하루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며칠간 계속되었으며, 또 사망자와 부상자의 발생 그리고 검문검색을 통해 체포되어 재수용된 인원 등이 날짜와 보고 계통에 따라서 다르게 집계되었기 때문이다.<sup>17)</sup> 한편 당시 부산에 있던 중국군 포로 107명도 탈출에 성공하여 이들 중 일부는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부산에 있던 화교의 집에 거주하면서 중국대사관과

16) 위의 책, 73-81쪽.

17)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국방군사연구소, 1996), 226-227쪽.

연락을 하였고, 이후 10월 8일 타이완으로 가게 된다. 당시 주한대사였던 왕둥위엔(王東原)은 이에 대해 부산지역의 중국 국적 반공포로들은 대다수가 입원환자였고, 탈출한 사람들의 일부는 다시 체포되었지만 63명의 포로는 화교들이 몰래 숨겨주어 10월 18일 타이완으로 귀국했다고 회고하였다.<sup>18)</sup>

국내 일간지에 소개된 이들의 소식은 다음과 같다.<sup>19)</sup>

탈출한 약 57명의 반공 중국 포로의 신분은 23일 상급 의문 중에 있으나 또 57명의 중국 포로는 공산주의치하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당국에 이관되었다. 지난 18일 부산근방에 있는 1포로 병원으로부터 중국 포로 107명이 탈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포로는 탈출한 북한포로와 같은 따뜻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이대통령은 이들의 재체포를 명령하였던 것이다. 한국경찰대는 동명령이 발하여진 지 24시간 내에 탈출한 중국 포로 107명을 다시 체포하였다. 이 중 57명은 즉시 '유엔'군 포로사령부 당국으로 이관되었으나 나머지 50명은 상급 한국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 50명도 불원 '유엔'군 측에 이관될 것으로 기대되었었다. 포로들의 체포를 감독하였던 한국 당국자가 말한 바에 의하면 미군 경비병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본 중국 포로들은 다시 수용소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달라고 애걸하였다고 하며 이들은 공산주의 치하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다. 또한 이 중국 포로들은 대만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타이완 정부도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다. 정전협정 체결 후 타이완 외교부의 한국전쟁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를 주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과 함께 21일에는 중국 국적 반공포로 107명이 도주하였다. 이에 한국 경찰 측은 2개 처로 나누어 이들을 수용하였는데, 50명이 있던 곳에서는 즉시 미군에게 잡혀갔고, 다른 곳에 있던 이들은 도망쳤다고 한다”<sup>20)</sup>는

18) 王東原, 『반공포로 생탈전 기록』(KBS 6·25 40주년 특별제작판, 1990), 10쪽.

19) 「臺灣에 送還哀乞, 脫出中共捕虜 五七名을 再收容」, 《조선일보》, 1953년 6월 26일자. 이 외에도 당시 증언으로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날은 포로들이 동란을 일으켜 튀어 나와 창문을 열고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다시 인솔하려면 달라 빼고 흩어지고 골치 아픈거라. 그래서 우리 화교 분들과 정보부 사람들 몇몇이 그 사람들을 인솔했어요. 우리 협회가 그때 인애촌 서면 신(의)촌의 일부를 수용했어요. 그렇게 했답니다.” 김태만, 『내 안의 타자: 부산 차이나스 디아스포라』(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 연구센터, 2009), 157쪽.

20) 「韓戰和談參考資料, 中華民國 42年 7月 28日」, 外交部 編號 第127號, 券號 第28號, 臺灣 國史館 소장 자료.

내용이었다.

포로수용소에서 탈출한 중국 국적 포로의 인원은 초기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정확한 탈출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과 같은 맥락이었을 것이다. 타이완에서도 초기에는 반공포로 58명이 탈출했다고 파악하고, 총통부에서 국방부로 50명의 명단(8명은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음)을 보냈으며<sup>21)</sup>, 중앙위원회 제5조 귀덩(郭澄)이 주재한 9월 17일 좌담회에서는 이미 전쟁포로들이 중립지역으로 이송되었지만 그들 중 58명은 2주 내에 타이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sup>22)</sup> 인원의 변동은 보고사항에서 자주 반복되었지만 10월 초가 되면 63명으로 인원이 확정된다.<sup>23)</sup>

### Ⅲ. 한국과 중화민국 간의 관계 및 1950년대 한국 화교의 현황

#### 1. 한국과 중화민국의 역사적 관계

1921년 4월 쑨원(孫文)이 중화민국 정부를 수립한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여운형, 신규식 등의 공식대표를 파견하였다. 이후 쑨원이 사망하였지만, 그를 이은 장제스(蔣介石)도 임시정부를 계속 지지하였고,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그 관계는 지속되었다.<sup>24)</sup> 특히 일제 패망 후 1948년 11월 7일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南京)에 있는 예빈관(영빈관)에 '대한민국주중특사관(大韓民國駐中特使館)'이 설치되었고<sup>25)</sup>,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과 중화민국 장제스 총통은 '반공'이라는 이데올로

21) 「總統部에서 國防部로 보내는 전문」, 收文 42年 9月 9日, 署收 5811號, 國軍檔案 檔號: 545-6355, 臺灣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소장 자료.

22) 「中央委員會 第4·5·6조가 외교부에 보내는 전문(첨부: 援助中國反共義士運動座談會記錄, 1953. 9. 17)」, 外交部 情報司收文 42年 9月 22日, 第2390호, 臺灣 國史館 소장 자료.

23) 「國防部本部出席例會報告表, 1953. 10. 3」, 國軍檔案 檔號: 545-6355, 臺灣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소장 자료.

24) 이규태, 「한국과 '대만'의 정치적 관계-과거, 현재, 미래」, 『동아연구』 제27집(1994), 29쪽.

25) 박실, 『한국외교비사』(기린원, 1980), 44쪽.



기로 연결되어 이 관계는 1950년에도 지속되었다.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되자, 1948년 8월 13일 중화민국 정부는 “양국 간 우호협조의 정신에 기초하여 한국 정부를 임시로 승인하고 리유위완(劉馮萬)을 대사 자격으로 중국외교대표로 임명한다”고 선언하였다. 이어 동년 9월 16일 쉬샤오창(許紹昌)이 총영사로 부임하였다. 중화민국은 1949년 1월 4일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면서 샤오위린(邵毓麟)을 대사로 임명하였다.<sup>26)</sup> 중국대륙에서 내전을 치르다 패배한 중화민국이 1949년 12월 광둥(廣東)에서 타이완(臺灣)으로 철수할 때 유일하게 함께 동행한 외국대사관은 대한민국대사관이었다.

또한 아시아에서의 반공연맹 결성 시에도 이승만 대통령과 장제스 총통은 같은 의견을 견지하였다. 1949년 7월 장제스는 필리핀을 방문하여 바기오(Baguio)회담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퀴리노(Elpidio Quirino)와 장제스는 성명을 통해서 “앞으로 필리핀·자유중국 및 한국은 태평양동맹의 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였다.<sup>27)</sup> 이와 관련하여 샤오위린이 이승만과 장제스의 회의를 준비하였다.<sup>28)</sup> 1949년 8월 6일 장제스는 한국 진해에서 이승만과 반공연맹 결성을 논의하였고<sup>29)</sup>, 1954년 6월 같은 장소에서 ‘아시아민족반공회의’가 개최되어 아시아민족반공연맹(APACL: Asian People Anti-Communist League)이 결성되었다.

하지만 냉전 시기에 반공으로 결집되었던 관계는 소련이 붕괴되고 탈냉전 시기에 접어든 후 변화되어, 1992년 한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체결함과 동시에 중화민국과는 단교하게 되었다. 이후 21세기에 들어 양국의 관계가 다시 호전되어 2003년에는 비자면제제도가 도입되고, 2005년에는 직항항공편이 복항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관계 속에서 한국전쟁기 반공포로 63인의 타이완행을 도운 집단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화교였다.

26) 王恩美, 『東アジア現代史の韓國の華僑-冷戰體制と意識』(東京: 株式會社三元社, 2008), 144쪽.

27) 박실, 앞의 책, 105-106쪽.

28) 邵毓麟, 『使韓回憶錄』(臺北: 傳記文學出版社, 1980), 112쪽.

29) 「蔣總裁 6일 遂來韓, 李大統領과 鎮海서 會談開始, 初日은 非公式晚餐會서 交驛」, 《조선일보》, 1949년 8월 8일자.

## 2. 화교의 한국 정착과정 및 1950년대 현황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화교의 수는 2만여 명으로<sup>30)</sup>, 화교의 한국 정착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화교가 집단적으로 정착하게 된 시기는 조선 후기로 1882년 임오군란 당시 진출한 군역상인(軍役商人)들로부터 시작되었고, 개항장을 중심으로 중국인 집단주거지가 조성되었다.<sup>31)</sup>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후 한국에 거주한 화교의 역사는 동아시아 정세에 따라 변화되었는데 1945년 한국(남한)에는 1만 2,000여 명의 화교가 살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적성국 국민으로 감시와 억압을 받았던 화교들은 일본의 패전 후 전승국 국민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미국은 당시 한국에 남아 있던 일본인을 전원 본국으로 강제 송환시켰지만, 우방국인 중화민국 국민의 일원인 화교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어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며 귀환시켰다.<sup>32)</sup> 1948년 5월까지 귀국한 화교의 수는 총 1,940명으로 당시 한국에 거주하던 화교는 국공내전으로 정세가 불안정한 중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미 생활기반이 마련된 한국에 남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sup>33)</sup>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지 않았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고 한국 정부가 이전을 결정하자 타이완 정부가 주한대사관에 지시한 행동 방침은 “한국 정부와 행동을 함께 한다”는 것이었다. 한국군의 패배에 따라 한국 정부는 6월 27일 대전, 7월 8일 대구, 8월 18일 부산으로 이전하였다. 이에 중화민국주한대사관도 7월 10일에는 대전으로, 14일에는 대구로, 8월 19일에는 부산으로 이동하였다.<sup>34)</sup>

1948년, 1952년 10월, 1954년의 주요 지역별 화교의 수는 표2와 같다.

30)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삼성경제연구소, 2013), 92쪽.

31) 장세훈, 「부산 속의 아시아, 부산 초량동 중화가의 사회생태학적 연구」, 『경제와 사회』 통권 제81호(2009), 311-312쪽.

32) 조세현, 「해방 후 부산의 청관(淸館)거리와 화교들」, 『동북아문제연구』 제34집(2013), 491쪽.

33) 왕은미, 「미군정기 한국화교사회: 미군정·중화민국 정부·한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7집 1호(2005), 95쪽.

34) 王恩美, 앞의 책, 145쪽.

표2-주요 지역 화교 인구

(단위: 명)

지역	1948년	1952년 10월	1954년
서울	6,603	2,725	4,368
인천	4,016	2,542	3,098
대구	633	1,275	1,864
부산	493	4,182	5,032
기타 지역	5,685	7,201	7,698
합계	17,430	17,925	22,090

출처: 1948년과 1953년 10월은 王恩美, 『東アジア現代史の韓國の華僑-冷戰體制と意識』(東京: 株式會社三元社, 2008), 156쪽을, 1954년은 華僑志編纂委員會 編, 『韓國華僑志』(臺北: 華僑志編纂委員會, 1958), 53-54쪽을 편집 인용.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48년 당시에는 총 화교 수의 약 38%가 서울지역에 집중되었지만 전쟁 기간 중 화교들이 피난을 떠나 총수의 약 23%가 부산지역에, 그리고 약 7%가 대구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지역에는 1951년 9월 샤오위린이 퇴임하고 새로 부임한 왕동위엔을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지인 촌(村)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전쟁기부터 부산지역에는 모두 3개의 화교촌이 건설되는데, 1950년 겨울 유엔군이 북한 원산에서 철수할 때 함께 내려온 화교들은 초기에 거제도에 정착하였다가 이후 부산 교외지역에 인애촌(人愛村)을 건설하였다. 또한 충효촌(忠孝村)은 1950년 겨울에 500여 명의 서울·인천 지역 화교가 남쪽으로 피난하게 되면서 중화민국 구 영사관 자리에 자리를 잡아 형성되었다.<sup>35)</sup> 이 외에 서면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의촌(信義村)이라는 화교촌도 형성되었다.<sup>36)</sup>

## IV. 반공포로 63인의 타이완행과 교육 및 선전 활동

### 1. 한국전쟁 초기 타이완의 입장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타이완 정부는 바로 한국에 대한 지원 입장을

35) 華僑志編纂委員會 編, 『韓國華僑志』(臺北: 華僑志編纂委員會, 1958), 138-141쪽.

36) 조세현, 앞의 논문, 498쪽.

표시하였다. 1950년 6월 27일자 《中央日報》<sup>37)</sup>는 “중(화민국)·한 사이의 우방관계는 긴밀하고”, “우리나라는 안보리에서 한국 정부 지지를 결의하였으며”, “이승만이 어제 타이베이(台北)와 심야에 중요한 통화를 했다”고 보도했고, “중화민국과 한국이 손을 잡고 끝까지 분투하자”라는 제목의 평론을 실었다.<sup>38)</sup> 장제스는 6월 29일 미국에 있는 구웨이쥔(顧維鈞)과 후스(胡適)에게 미국 대통령 트루먼(Harry S. Truman)을 만나 6월 26일 한국 파병 건의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도 처음에는 장제스의 파병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애치슨(Dean G. Acheson) 등은 장제스의 파병이 중공의 파병을 불러올 수 있으며, 또한 국민당 군대가 한국군에 비해 전투력이 별로 나을 게 없다는 이유로 국민당의 한국전쟁 개입을 반대하였고, 결국 트루먼은 장제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sup>39)</sup>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인해 타이완 문제는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맥아더(Douglas MacArthur)는 중국의 전쟁 개입으로 상황이 변화했다고 판단하고, 12월 3일 한국전쟁에 타이완 국부군을 활용하지는 장제스의 제안을 수용하자고 건의했지만<sup>40)</sup> 결국 이러한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전쟁에 대한 직접 개입이 실현되지 않자, 타이완 정부는 중국인들을 심리전, 전투부대, 정보부대에 참전시켰다.<sup>41)</sup>

1951년 7월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되고 포로송환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 되자 타이완 정부는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국공내전에서 패배하여 대륙을 떠나 타이완에 정착한 국민당 정부로서는 포로들의 향후 거취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정전협정 체결 직후 타이완 국방부에서는 반공포로를 데려온 후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였다.<sup>42)</sup> 그 내용은 포로가

37) 1929년 2월 1일 상하이에서 창간된 《中央日報》는 국민당 기관지로, 1949년 국민당 정부가 타이완으로 이전한 뒤에도 2006년까지 간행되었다.

38) 란스치(藍適齋), 『반공의 희망에서 망각된 전쟁으로: 대만의 한국전쟁 기억』, 성공회 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기획, 백원담·임우경 엮음, 『냉전'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문화과학사, 2013), 318쪽.

39) 김경일 지음·홍면기 옮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논형, 2005), 388쪽.

40) 이상호, 『맥아더와 한국전쟁』(푸른역사, 2012), 286쪽.

41) 이와 관련된 내용은 王恩美, 앞의 책, 159-166쪽 참조.

42) 「韓戰華籍反共義士來台處理方案, 四十二年七月二十九日」, 國軍檔案 檔號: 545-6355, 臺灣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소장 자료. 그 외 1951년 8월 타이완 국방부는 제2청 청장 라이밍탕(賴名湯)이 제안한 '공산당에 반대하는 전쟁포로를 타이완으로 데려오는 방침'을 통과시켰다는 의견이 있다. 佚名, 「志願軍戰俘為何去台灣」, 『文史月刊』3期(2013), 5쪽.

타이완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을 ‘한국전쟁 중국 국적 반공의사’로 부르며 다시는 ‘전쟁포로’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들을 타이완의 병역법에 따라 관리하며, 초기에는 정부에서 기본생활 수준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의 취업을 위한 전문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논의하였다.

이미 1950년 4월 4일 타이완에서는 중국대륙재포구제총회(中國大陸災胞救濟總會, 이하 救總)가 설립되었다. 救總의 초기 활동 방향은 대륙에서 타이완으로, 홍콩 혹은 해외로 나간 동포를 지원하는 것이었다.<sup>43)</sup> 그리고 한국전쟁기에는 중국 국적 포로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외에 1953년 9월 26일에는 중화민국각계원조유한중국반공의사위원회(中華民國各界援助留韓中國反共義士委員會)가 설립되어 포로를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 2. 타이완 정부의 송환 노력

1953년 10월 3일 ‘한국으로부터 귀국한 반공의사접대주비회(接待由韓回國反共義士籌備會)’에서는 이들의 송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반공포로의 접대는 救總 및 외교부가 주한대사관에 전문을 보내 쌍십절 전에 돌아오도록 한다. 실무적인 업무는 외교부 왕동위엔 대사가 비행편을 확인하고, 외교부장이 민항공사와 교섭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입경수속 및 신분증 교부는 사후에 보안사령부가 담당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환영방법은 救總이 군인 지우총사(軍人之友總社, 이하 軍友總社)<sup>44)</sup> 및 화교구국총회(華僑救國總會)<sup>45)</sup>에 요청하여 처리하며, 비행장에 환영표어를 매단다는 것이었다.<sup>46)</sup>

43) 1950년 4월 4일 설립된 中國大陸災胞救濟總會는 中國災胞救助總會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가 현재 中華救助總會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다. <http://www.cares.org.tw/> (검색일: 2013. 12. 30).

44) 1951년 10월 31일 창설된 中華民國軍人之友社는 사회 각계에 군인을 공경·위문하고, 국군 장교와 사병에게는 유관 사회공익 활동을 진행할 것을 호소하여 군민합작과 단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http://www.fafaroc.org.tw/web/2013/> (검색일: 2013. 12. 30).

45) 1952년 10월 21일 당시 교부위원회 위원장 겸 중국국민당 중앙 제3조 주임인 정연편(鄭彦筌)이 7일간 ‘제1차 전 세계 교무회의(第一次全救僑務會議)’를 개최하여 ‘화교절’을 정하고, ‘화교구국연합총회(華僑救國聯合總會)’를 설립하였다. <http://www.focat.org.tw/> (검색일: 2013. 12. 30).

이렇게 타이완 정부에서 정확한 인원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 있던 왕동위엔 대사가 연락을 취한 것 외에도 8월 26일에 위문단이 제주도를 방문하였기 때문이다. 광치(方治)를 단장으로 하는 위문단은 포로들에게 전달할 1만 4,000여 개의 선물을 가지고 모슬포에 도착하여, 28일부터 전쟁포로에 대한 방송 및 인터뷰 진행 그리고 국기와 총통 초상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였다.<sup>47)</sup>

타이완의 《中央日報》는 1953년 8월 27일 救總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반공지사를 위문’한 소식을 보도하면서 救總의 위문 서한을 게재하였고, 그 가운데 ‘반공의사가 “조국을 가장 사랑한 남아이며, 불굴의 충정을 가진 지사이고, 여러분의 위대한 반공활동이 우리 중화민족을 대신해 무한한 영광을 쟁취했다”고 강조하였다.’<sup>48)</sup>

救總 비서장 광치는 8월 28일부터 제주도 모슬포의 활동 내용을 10월 24일 외교부에 보고하였다.<sup>49)</sup> 내용을 살펴보면 위문단은 타이완성 토산품 37톤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여 재해를 입은 화교를 조사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포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조사하였다. 당시 제주도 모슬포 및 부산에 있는 중국 국적 반공의사는 총 1만 4,699명(모슬포 1만 4,269명)으로 다수가 청장년이고, 출신지역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쓰촨성(四川省) 출신이 가장 많다고 파악하였다. 특히 최초로 타이완으로 올 63인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는데, 이들의 연령, 직업, 학력 통계표를 살펴보면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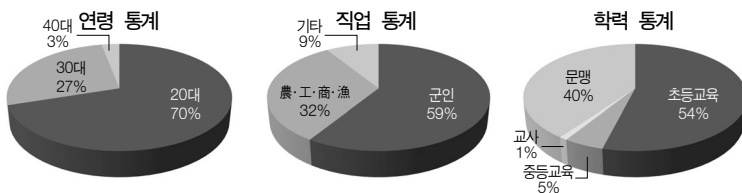


그림1-반공포로 63인의 연령, 직업, 학력 통계

출처: 「行政院交辦議案件通知單」 자료 중 편집 인용, 外交部 情報司收文 42年 10月 26日, 第2754호, 臺灣 國史館 소장 자료.

46) 「中國大陸災胞救濟總會가 外交部에 보내는 전문(첨부: 接待由韓國回國反共義士籌備會記錄)」, 外交部 情報司收文 42年 10月 5日, 第2518호, 臺灣 國史館 소장 자료.

47) 「Telegram from Fang Chi to Waichiaopu(Taipei), 1953. 8. 31」, Incoming Telegram No. 3488, 臺灣 國史館 소장 자료.

48) 란스치(藍適齊), 앞의 논문, 322쪽.

49) 「行政院交辦議案件通知單」, 外交部 情報司收文 42年 10月 26日, 第2754호, 臺灣 國史館 소장 자료.

우선 이들은 20대가 70%로 다수가 청년층이었다. 원래의 직업이 군인이었던 사람도 59%였지만, 그 외 직업에 종사하다가 군인이 된 경우도 있었다. 이 중에서 군인 출신 포로들은 국민당군 또는 공산당군으로만 표기된 경우도 있었고, 처음에는 국민당군이었으나 국공내전 기간 중에 공산당군에 편입되었다는 등의 경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포로조사 과정에서 진술된 이들의 경력 내용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또한 이들의 출신지역(63인이 총 25개 지역(省), 시(市) 분포)이 다양했기 때문에 포로들 간에도 상대방의 출신 배경을 검증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후 이들 63인 반공포로는 10월 8일 타이완으로 가게 되는데 이 시기는 원래 수용소에 있던 포로들이 중립지역으로 이동한 후였지만, 이들은 부산의 화교 거주지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이송되었다. 10월 7일 부산대사관에서는 타이완 외교부에 전문을 보냈다. 26명으로 구성된 첫 번째 그룹은 KNA(Korean National Airlines)<sup>50)</sup> 전용기로 도착할 것이고, 두 번째 그룹 39명은 CAT(Civil Air Transport, 중국민항공사)기를 이용하여 도착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sup>51)</sup> 이들은 10월 8일에 타이베이에 도착하여 성대한 환영식을 치렀다.

이들의 타이완행을 국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sup>52)</sup>

지난 6월 한국 정부에 의해서 국제연합군포로수용소로부터 석방된 63명의 전중공병 사들은 7일 밤 2대의 비행기에 분승하여 대만으로 향발하였다. 이들 63명의 전중공 병사들은 2만 7천 명의 반공복합군 포로들과 함께 공산주의 통치하에 귀환할 것을 거부하는 포로전원을 석방하라는 한국 정부의 명령을 받은 한국군 경기병의 후원으로 동 수용소를 탈출한 것인데 당시 동 수용소를 탈출한 다른 90명의 중공포로를 한국경찰에 의하여 국제연합군에게 인도되었다. 한편 대만으로 향발한 63명의 전중공포로는 부산에 거류하는 중국인주택에서 보호를 받아왔던 것이다. 이들은 한국 민간공로의 비행기 한 대와 국부중국의 민간항로의 1여객기에 분승하여 부산을 떠나 대만으로

50) 大韓航空公司: 대한국민항공사 소속 여객기, 1962년 이후 대한항공으로 변경.

51) 「부산 대사관에서 타이베이 외교부로 보내는 전문」, 外交部 情報司收文 42年 10月 7日, 第525호, 臺灣 國史館 소장 자료. 초기 타이완 정부는 이들의 운송이 끝난 후 타이베이에서 KNA에 1인당 승객 운임비로 115달러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Letter from Ha ji Yusif Chang(First Secretary, Embassy of the Republic of China Korea) to The Manager(Korean National Airlines), Oct. 7, 1953」, 外交部 編號 第127號, 券號 第28호, 臺灣 國史館 소장 자료.

52) 「前中共 捕虜 七日 臺灣에」, 《조선일보》, 1953년 10월 10일자.

향발하였다. 당시 주재 국부 대사관의 대변인은 이들이 8일밤 대만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중국국민당 중앙위원회 제4조는 10월 8일 선전통보를 통해 반공의사 63인의 타이완 도착 소식을 알렸고, 이들이 한국 정부가 6월에 포로를 석방할 당시 탈출했던 사람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화교의 협조하에 귀국하게 되었으며, 다만 의사 개인의 의견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 명단을 정식으로 발표하지는 않겠다고 보도하였다.<sup>53)</sup>

### 3. 반공포로의 교육 및 선전 활동

반공포로 63인이 돌아온 후 11월 20일 개최예정인 ‘한국의 반공의사 타이완 귀국 후 유관 문제 처리 소조(由韓反共義士來台有關問題處理小組)’ 제2차 회의에 보고될 내용에 따르면<sup>54)</sup>,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들에 대한 공작활동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 1차 일정(1953. 10. 14-23)

1953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반공포로의 타이베이 및 근교에서의 일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 표3- 교육방법

1. 심화연구(설명)	총리 유훈(삼민주의 설명), 총재 훈화(반공항러(反共抗俄) 기본론, 시사 문제(국내외 정세))
2. 좌담 및 소조 토론	자기소개, 생활 검토, 의견 진술 및 유관 주제 토론
3. 참관활동	지방자치, 공업건설, 농업조직, 학교 정황, 군사설비 및 근교 명승 유람
4. 자유창작(글짓기)	한국·대륙에 대한 방송 원고, 자유세계(타이완 포함)에 대한 보도 및 기타 선전운용 자료

출처: 附件 一. 首批歸國反共義士活動日程草案之一, 國軍檔案 檔號: 545-6355, 臺灣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소장 자료.

53) 「宣傳通報 第三十三號, 中華民國四十二年 十月 八日」, 外交部 編號 第127號, 券號 第28號, 臺灣 國史館 소장 자료.



이 교육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 각 유관단위에서 정치공작 동지를 모집하여 종합소조를 조직하고, 반공포로의 선전, 교육, 심사 및 유관자료 수집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세부적으로 지도종합소조는 국방부 총정치부, 중앙위원회 제4·5·6조, 救總, 軍友總社 및 청년복무단(青年服務團)에서 동지 1인(혹은 2인)을 파견하여 조직하였다. 그리고 청년복무단 단장을 소집인으로 하고, 국방부 총정치부장을 부조장으로, 중앙위원회 제6조 중간사를 부소집인으로 하여, 참관, 심사, 선전, 교육 등 4개 조를 조직하여 각 공작을 책임지게 하였다. 그리고 각 조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반공포로와 수시로 세 차례의 개별담화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교육방법으로 심화연구 및 토론에는 지도종합소조가 선택한 주제로 설명, 좌담회 및 소조토론회를 진행하는데, 선전 내용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반공의사의 초보적인 이해공작을 돕도록 하였다. 참관은 교육, 선전과 함께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반공의사가 자유와 독재의 대비, 진리와 폭정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각 지역에서 반공의사가 적근지역의 상황을 강연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지도종합소조가 계획하여 운용하도록 하였다.

자유창작(글짓기)에 대한 방법으로 방송 원고 작성은 지역별로 나누어 준비하였다.

첫째, 한국에 방송할 내용은 반공의사가 타이완에 도착한 후 확인한 자유중국의 발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중립지역으로 이동한 포로들을 대상으로 한 원고는 그들의 의지를 강화하고 조국을 그리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둘째, 대륙에 대한 방송은 지명(指名) 방송으로 하며, 반공의사와 대륙의 적과의 차이를 적군 및 일반인에게 광고하여 심리전을 이용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대륙의 영공에서 공중 투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셋째, 타이완을 포함한 자유세계에 대한 선전은 반공의사가 적 지역에서 보고 들은 것의 폭정 및 자유조국에 대한 그리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반공 선전을 확대하는데, 이러한 선전 원고는 10월 24일 전에 완성하여 중국방송공사(타이완 소재)에 인력을 파견하여 녹음하고, 지도

54) 「행정원 비서처에서 국방부장 郭寄嶠에게 보내는 전문(1953. 11. 19)」, 國軍檔案 檔號: 545-6355, 臺灣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소장 자료. 이하 내용은 이 전문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였음.

종합소조의 협조하에 원고를 쓰도록 하였다. 특히 자유세계에 대한 선전자료는 타이완 및 해외 각 대형신문에 보도하는 것 외에도 반공의사의 사진을 인상하여 해외에 보내고, 구술 또는 기록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며, 지도종합소조 외에도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당시 반공포로들과 함께 활동한 지도종합소조는 10월 24일 이전에는 청년복무단에서 숙박하며, 청년복무단에서 임시로 이들의 접대사업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도종합소조와 관련된 일은 중앙위원회 제6조가 도와주도록 하였다.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의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표4와 같다.

표4- 교육 일정

시간 날짜	7:00- 7:30	8:00- 8:50	9:00- 9:50	10:00- 10:50	11:00- 11:50	2:00- 5:50	7:00- 8:50
10/14		읽기 훈련	자기소개		노래	참관 (박물관, 신공원(新公園), 일여중(一女中))	자기소개
10/15		노래	특정 주제 강연 -광치(方治) 선생	자기소개		참관 [양명산 시립농민협회 및 실천학원(實踐學院)]	자기소개
10/16		읽기 훈련	자기소개	총정처부 수집자료의 의의 설명		참관 (정치공작원 간부학교)	만찬 (정치공작원 간부학교)
10/17		분조좌담 (적군 정치공작 및 중국공산당, 공산주의청년단의 활동) -총정처부 주최		각 방송국 방문 녹음		참관 (軍友總社)	만찬 (軍之友社)
10/18		분조좌담 (적군 정치공작 및 중국공산당, 공산주의청년단의 활동) -총정처부 주최		마르크스레닌주의 비판 -런취쉬안(任卓宣) 선생	분조좌담 (적군 정치공작 및 중국공산당, 공산주의청년단의 활동) -총정처부 주최		글짓기
10/19		특정 주제 강연(자본주의와 불세비키주의의 분석) -타오시선(陶希聖) 선생	반공항려(反共抗俄) 기본론 -장환딩(張煥鼎) 선생		분조좌담(적군편제장비) -지도소조		분조좌담(적군 훈련) -지도소조
10/20		국내정치 -황지루(黃季陸) 선생	국제 현재의 정세 -선창환(沈昌煥) 선생		참관(공장, 광산회사방직공장)		방직공장 만찬
10/21		특정 주제 강연 -양얼링(楊爾瑛) 선생	분조좌담 (적군훈련보방(保防)) -지도소조		참관(담배와 술 창고)		삼군구장(三軍球場) 에서 시행하는 화교질(華僑節) 참가
10/22		俄帝侵華史(소련의 중국침략사) -저우유춘(周酉村) 선생	소조토론회(민중운동) -중앙 제5조		분조좌담(대륙사회 각 계층심리) -지도소조		분조좌담 (대륙사회 각 계층 심리)-지도소조
10/23		삼민주의 -런취시안 선생	삼민주의 -런취시안 선생		분조좌담(각 항 좌담 내용 보충) -지도소조		분조좌담(각 항 좌담 내용 보충) -지도소조
비고	1. 개별 좌담은 수시로 시간을 내어 진행한다. 2. 대륙 및 한국에 있는 포로에 대한 방송 원고는 지도종합소조가 수시로 시간을 내어 처리한다.						

출처: 附件 二. 首批由韓歸國反共義士在台北日程配當表(中華民國 四十二年十月十四日), 國軍檔案 檔號: 545-6355, 臺灣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소장 자료.

1차 일정 동안 반공포로는 심화연구, 좌담 및 소조 토론, 참관활동, 글짓기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일정을 진행하였다. 이후 이들이 글짓기를 하고 읽기 훈련을 한 원고는 각 방송국에서 방송되었는데, 10월 17일 반공포로 쉬광신(徐光信)은 “한국에 있는 화교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타이완에 오자 환영과 우대를 받았다”고 언급하였다. 또 다른 반공포로인 송귀린(宋國麟)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1만 4,000여 명의 반공포로를 대상으로 선전방송을 하였다. 그는 자유중국의 진보된 기상과 각계 인사의 그들에 대한 관심, 포로들의 타이완행을 위한 정부의 준비와 노력을 설명하고, 최후까지 확고한 의지로 모두 타이완으로 돌아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명방송은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sup>55)</sup>

일정에 포함된 좌담 및 강연에는 명망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린취시안(任卓宣)은 삼민주의 이론가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타오시성(陶希聖)은 장제스의 비서로 1943년 출판된 『중국의 운명(中國之命運)』을 기초하였고, 《中央日報》의 총주필이었다. 포로들에 대한 교육 내용은 체계적이었고, 상당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63인 포로의 교육수준은 약 40%가 문맹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교육과정은 1만 4,000여 명의 반공포로가 타이완에 도착했을 때 활용할 기초 작업이었다.

## 2) 2차 일정(1953. 10. 26-11. 31)

타이완 정부가 2차 일정을 분조 참관 방법으로 채택한 이유는 “반공포로가 자유중국의 일반적 상황을 이해하고, 군민(軍民)의 잠재된 반공역량과 반공항려의 신념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와 함께 군민이 적 치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민심의 사기를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분조 참관은 3개 조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조 편성은 제1조 25명, 제2조 26명, 제3조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는 3개 조가 함께 타이베이 시의 학교, 성(省)운동회 등을 참관하고, 10월 31일에는 장제스의 탄생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이 일정 이후 11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3개 조로 나누어 각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들의 주요 방문지역은 농촌, 학교, 공장,

55) 反共士奮闘史編輯委員會 編, 『反共士奮闘史』(台北: 反共義士就業輔導處, 1955), 305-306쪽.

광산, 삼림공사, 수리공사, 교통공사, 전력설비, 사회사업 및 군사학교와 부대였다.

이들의 활동은 각 참관단위에서 자유이용, 좌담회, 집합강연 등의 방식으로 포로들이 종업원과 학생 또는 군인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중대회 개최, 각계 환영회, 오락회 참가, 촌(村), 리(里)에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반공의사가 이들을 만나고 강연을 하게 하였으며, 여가를 활용해 부대를 방문하도록 하였다.

각 분조의 참관활동을 진행하는 데는 유관단위에서 지도연락인원 10명을 파견하여 각 분조에 배치하였다. 그들은 연락, 교육, 선전, 운용, 총무 등의 임무를 담당하는데, 그 인원 선발은 국방부 총정치부에서 3명, 중국국민당 중앙위원회 제6조, 타이완성 당조직, 軍友總社, 救總, 타이완성 청년복무단에서 각 1명씩, 타이완성 사회처에서 2인을 선발하여 포로들과 행동을 같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조 지도원 중 1인을 추천하여 책임자로 하고, 대외연락·대내관리의 책임을 지게 하였다.

이들이 참관지역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은 전선지역에는 국방부가 제공하도록 하고, 타이완 내에서는 기차(3등) 및 버스를 사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참관 시 준비단위에서 대책을 강구하며, 식비와 숙박비는 공작비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개인당 식비는 1인당 매일 12원, 아침 2원, 점심·저녁 각 5원으로, 만약 접대를 받을 경우에는 지불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숙박비는 1인당 매일 10원이지만, 가능한 한 참관단위의 초대소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개인당 용돈은 매일 2원이며, 동행하는 각 단위인원의 1인당 공작비는 매일 15원이었다.

참관 기간 중 군사학교부대에서 숙박할 경우에는 학원생, 병사와 함께 공동으로 국기계양식, 학습연구, 총통훈사 등에 참가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준비사업은 각 현, 시정부, 의회, 軍友總社 등에서 합동으로 처리하고 각 현, 시 정부가 소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국방부, 타이완성 정부, 성의 당조직, 軍友總社 및 유관단위에서 나누어 그 소속단위가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일정은 11월 말까지 진행되지 못하였다. 10월 1일 중립지역에서 발생한 인도군의 포로 학살 사건은 한국뿐만 아니라 타이완 정부의 관심도 집중시켰다. 한국에서는 10월 6일에 종로 보신각 뒤

광장에서 인도군의 철수를 요청하는 각 정당 사회단체의 시위가 있었고<sup>56)</sup>, 10월 7일 부산에서 개최된 시위에는 화교 약 2,000여 명이 참가하였다.<sup>57)</sup> 그리고 10월 8일에는 중국인만의 집회가 개최되었는데, 화교와 한성화교소학교 학생 약 300명이 시내 탑동공원에서 ‘친공인도군을 한국에서 구축하자’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시가행진을 진행하였다.<sup>58)</sup> 이에 63명의 포로는 일정을 다 끝내지 못하고, 타이베이에 집결하여 두 가지 활동을 진행하였다. 우선 외교부, 미 대사관 및 미국 부통령 닉슨(Richard M. Nixon)에게 반공포로의 자원송환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고 중국과 외국 기사를 모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혈기(血旗)로 만든 표어 및 각종 반공활동 사진을 후스와 천주교 주교에게 보내며 인권의 보장을 요청하였다.

타이완으로 간 63인 반공포로는 약 2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그들은 타이완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참여하였고, 각 지역을 참관하였으며, 방송선전도 경험하였다. 이러한 직접적인 활동 외에도 이들의 행적과 관련된 간접적인 선전도 진행되었는데, 중화민국각계원조유한중국반공의사위원회의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반공포로 63인이 타이완으로 온 후 그들의 사진 200여 점과 혈서 및 혈기는 쌍십절에 타이베이 시(台北市), 타이중 현(台中縣), 가오슝 현(高雄縣)에서 3일 동안 전시되었고, 이를 보기 위해 관광객 10만 명이 모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자료는 다시 이란 현(宜蘭縣) 등 다른 지역에도 보내 전시되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선전 슬라이드 필름을 제작하여 각 성, 시의 영화관에서 상영하였다.

타이완 정부는 국내에서 반공포로의 선전활동을 통해 국내의 정치동원을 주도하였는데, 1953년 11월 22일까지 중화민국각계원조유한중국반공의사위원회가 한국의 반공의사를 후원하기 위해 모금한 금액은 113만 4,078원이었다고 한다.<sup>59)</sup>

타이완 정부는 초기에 반공포로 63인이 쌍십절 전에 오도록 계획하였

56) 「印度軍 撤收 要求, 各政黨 社會團體 蹶起」, 《조선일보》, 1953년 10월 7일자.

57) 「중화민국주한대사관에서 외교부 등 기타 단체에 보내는 전문」, 外交部 情報司收文 42年 10月 17日, 第2660호, 臺灣 國史館 소장 자료.

58) 「在京華僑들 示威, 塔洞公園에서 印軍逐出을 絶叫」, 《조선일보》, 1953년 10월 10일자.

59) 「中華民國各界援助留韓中國反共義士委員會勸募捐款收入統計表」, 外交部 編號 第127號, 券號 第28호, 臺灣 國史館 소장 자료.

다. 이는 타이완의 국경절인 쌍십절에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을 예상하여 준비한 것이었고, 반공포로는 중국과의 국공내전에서는 패배했지만, 이데올로기 전쟁에서는 승리했다는 국내의 선전에 활용되었다. 또한 중립지역에서 발생한 반공포로 학살 사건과 관련해서 이들이 직접 국내외 기자들과 인터뷰한 것은 대내외 선전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이 외에도 중립지역으로 이동한 반공포로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63인 반공포로의 교육 일정에 포함되어 있던 자유창작(글짓기) 과정에는 중립지역의 포로들에게 쓰는 원고가 있었고, 이것을 송귀린이 방송하였기 때문이다.

반공포로가 중립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유엔군사령부는 포로들의 설득 공작을 해외에 보도하기 위해서 한국전쟁에 참가한 16개국의 기자 파견을 허락하였다. 동시에 타이완 기자 2명도 중립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sup>60)</sup> 기자 파견 외에도 당시 중립지역에 있던 병원은 반공포로가 타이완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었다고 한다.<sup>61)</sup> 이로 미루어 보아 중립지역에 있던 1만 4,000여 명의 반공포로는 타이완으로 간 63인 반공포로의 선전 내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타이완 정부는 63인의 반공포로를 대내외 선전용으로 활용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행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는 반공포로 내에 적군이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를 가능성 때문이었다. 1953년 9월 11일 반공을 주장하던 포로 2명이 공산당원이라고 발각된 사건은 타이완 정부에게 충격을 주었다.<sup>62)</sup> 따라서 타이완 정부는 반공포로 63인이 타이완에 올 때 성대한 환영 사업을 준비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에 대한 사상 성분 재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sup>63)</sup>

하지만 타이완 정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 국적 반공포로들의 타이완 선택이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의 위상을 제고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들을 대내외에 선전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과정은 이후 반공포로 1만 4,000여 명이 타이완으로 온 후에도 활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반공의사해외방문단(反共義士海外訪問團)’의 조직이었다.

60) 「觀察共方洗腦 我國記者低韓」, 《香港時報》, 1953년 9월 9일자, 臺灣 國史館 소장 자료.

61) 反共士奮鬥史編輯委員會 編, 앞의 책, 168쪽.

62) 「匪兩戰俘僞裝反共」, 《中華日報》, 1953년 9월 22일자, 臺灣 國史館 소장 자료.

63) 「행정원 陳誠이 국방부 郭寄嶠에게 보내는 전문(1953. 10. 7)」, 國軍檔案 檔號: 545-6355, 臺灣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소장 자료.

## V. 맺음말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국전쟁은 10월 19일 중국의 참전으로 인해 국제전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전쟁의 결과물인 사상자와 포로에는 한국인(남·북한)뿐 아니라 유엔군으로 참여하였던 16개국의 군인과 중국군도 포함되었다. 이 글은 중국군으로 참여하였다가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 당시 탈출하였던 중국 포로 63인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한국은 1920년대부터 중화민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그 관계가 지속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화민국주한대사관은 한국 정부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고, 한국에 거주하던 화교들 역시 부산지역으로 대거 이동하였다. 정전협정 체결 직전에 발생한 포로석방으로 부산지역에 있던 중국 포로 역시 탈출에 성공하였고, 이들은 부산지역에 있던 중화민국주한대사관과 화교들의 도움으로 10월 8일 타이완으로 가게 되었다.

타이완 정부는 이 반공포로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고, 이들이 타이완에 도착한 후에는 설명, 좌담 및 토론, 참관, 글짓기 등을 통해서 '자유중국'을 이해시키려고 하였다. 또한 타이완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향후 타이완으로 올 1만 4,000여 명에 대한 사전작업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대내외와 중립지역에 있던 반공포로들에게 선전용으로 활용되었다. 타이완 정부에게 중국 포로의 타이완행은 비록 내전은 패배했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승리했다고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데올로기 전쟁은 한국전쟁으로 첨예화된 당시 동아시아의 '냉전' 분위기를 반영하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 참 고 문 헌

臺灣 國史館 소장 자료.

臺灣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소장 자료.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의 포로』. 국방군사연구소, 1996.

김경일 지음·홍면기 옮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원』. 논형, 2005.

김경학, 「인도 정착 한국전쟁 중립국 선택 포로의 이야기」. 『인도연구』 9(1), 2004, 83-115쪽.

김승태·조성훈, 「6·25전란기 유엔군 측의 포로정책과 기독교계의 포로선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21, 2004, 37-71쪽.

김태만, 『내 안의 타자: 부산 차이나이스 디아스포라』.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9.

란스치(藍適齊), 「반공'의 희망에서 망각된 전쟁으로: 대만의 한국전쟁 기억」.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기획, 백원담·임우경 엮음, 『냉전'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 문화과학사, 2013.

박실, 『한국외교비사』. 기린원, 1980.

박영실,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관계』. 선인, 2012.

박은경, 『한국 화교의 種族性』. 한국연구소, 1986.

양필승·이정희,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삼성경제연구소, 2013.

오세희, 『65포로수용소』. 만인사, 2000.

王東原, 『반공포로 쟁탈전 기록』. KBS 6·25 40주년 특별제작반, 1990.

왕은미, 「미군정기 한국화교사회: 미군정·중화민국 정부·한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제7집 1호, 2005, 87-132쪽.

육군본부, 『유엔군 전사,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제1집. 육군본부, 1963.

이규태, 「한국과 '대만'의 정치적 관계-과거, 현재, 미래」. 『동아연구』 제27집, 1994, 21-52쪽.

이상호, 「한국전쟁기 미군의 공산포로 “미국화 교육”」. 『역사와 현실』 78, 2010, 421-449쪽.

\_\_\_\_\_, 『맥아더와 한국전쟁』. 푸른역사, 2012.

장세훈, 「부산 속의 아시아」, 부산 초량동 중화가의 사회생태학적 연구」. 『경제와 사회』 통권 제81호, 2009, 300-332쪽.

張澤石, 『중국군 포로의 6·25전쟁 참전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제성호, 「남북정상회담과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전략연구』 15(1), 2008, 143-179쪽.

조성환,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 인도적·인권적 관점」. 『통일문제연구』



- 23(2), 2011, 299-326쪽.
- 조성훈, 「한국전쟁 중 공산 측의 유엔군 포로정책에 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6, 1997, 217-266쪽.
- \_\_\_\_\_,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 조세현, 「해방 후 부산의 청관(淸館)거리와 화교들」. 『동북아문제연구』 제34집, 2013, 489-506쪽.
- 王恩美, 『東アジア現代史の韓國の華僑-冷戰體制と意識』. 東京: 株式會社三元社, 2008.
- 大鷹, 『志愿军战俘记事』. 昆明: 昆明出版社, 1987.
- 毛剑杰, 「策反密谋: 志愿军战俘投台的历史真相」. 『中外文稿』 7期, 2012, 54-56쪽.
- 反共士奮闘史編輯委員會 編, 『反共士奮闘史』. 台北: 反共義士就業輔導處, 1955.
- 徐宗懋, 「志愿军战俘去台始末」. 『晚霞』 10期, 2008, 34-35쪽.
- 徐宗懋·闻达, 「志愿军战俘去台始末」. 『文史博览』 17期, 2005, 50-53쪽.
- 邵毓麟, 『使韓回憶錄』. 臺北: 傳記文學出版社, 1980.
- 沈志華 編,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 下冊.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92.
- 王丰, 「万名志愿军战俘“拒返大陆”真相」. 『共产党员』 15期, 2010, 57-58쪽.
- 王勇·那孝伟, 「蒋介石劫掠志愿军战俘罪行大曝光」. 『党史文苑』 3期, 2002, 47-48쪽.
- 佚名, 「志愿军战俘为何去台湾」. 『文史月刊』 3期, 2013, 5-9쪽.
- 赵英魁 口述·王丰 文, 「“一万四千反共义士”骗局」. 『文史博览』 7期, 2010, 18-21쪽.
- 華僑志編纂委員會 編, 『韓國華僑志』. 臺北: 華僑志編纂委員會, 1958.
- Zhang Shuguang and Chen Jian(eds.), *Chinese Communist Foreign Policy and the Cold War in Asia - New Documentary Evidence, 1944-1950*. Chicago: Imprint Publications, 1996.

## 국 문 요 약

이 글은 1953년 6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 당시 탈출하였던 중국군 포로 63인의 타이완행에 관한 연구이다. 1920년대부터 지속되었던 한국과 중화민국의 관계는 1950년대 ‘반공(反共)’ 이데올로기로 하나가 된 이승만과 장제스에 의해 더욱 긴밀한 사이가 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중화민국주한대사관을 따라서 피난길에 오른 화교들은 부산지역에 촌(村)을 형성하였고, 탈출한 반공포로는 타이완으로 갈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렀다. 타이완 정부는 반공포로의 타이완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였고, 10월 8일 반공포로가 도착하자 이들에게 설명, 좌담 및 토론, 참관(參觀), 글짓기 등의 교육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들의 이와 같은 행적은 향후 타이완으로 오게 될 1만 4,000여 명 반공포로의 미래상이었다.

**투고일** 2014. 3. 20.

**심사일** 2014. 4. 28.

**게재 확정일** 2014. 6. 3.

**주제어(keyword)** 한국전쟁(Korean War), 반공의사(Anticommunist Chinese POWs), 반공포로(Anticommunist POWs), 중화민국각계원조유한중국반공의사위원회(Free China Committee for Aiding Anticommunist Chinese POWs in Korea), 중국대륙재포구제총회(Free China Relief Association)

### A Study on Movement of 63 Anticommunist Prisoners of War to Taiwan and Educational and Propaganda Activity

**Park, Young-sil**

This paper investigated the movement of 63 Chinese prisoners of war to Taiwan. Those prisoners of war escaped at the time of the release of anticommunist prisoners of war by the former President of Korea Syngman Rhee on June 18, 1953 to Taiwa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Republic of China continued from the 1920s was more intensified by the former President of Korea Syngman Rhee and Jiang Jieshi as they agreed with each other under the 'anticommunism' ideology in the 1950s. As the Korean War broke out, the Chinese living in Korea fled along with the Chinese Embassy in Korea and formed a village in Busan. The escaped anticommunist prisoners of war stayed in the Chinese village in Busan until they went to Taiwan. The Republic of China systematically prepared the movement of anticommunist prisoners of war to Taiwan. When the anticommunist prisoners of war arrived in Taiwan on Oct. 8, the government provided educational programs including presentations, discussions, meetings, visiting classes and writing for those prisoners of war. The activities of such prisoners of war the image of the future of about 14,000 anticommunist prisoners of war that have been moved to Taiwan since then.